What About Me?: The Struggle for Identity in a Market-Based Society

Jee Hyun Ha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

하 지 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저 자: Paul Verhaeghe

출판사: Scribe Publications

출간연도: 2014 (ISBN: 978-1922247377)

정신분석이 사회로 눈을 돌린 이유: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

전통적으로 정신분석이란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는 학문이자 치료법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위암에 걸린 사람이 부자이건 빈자이건, 공산주의자건 자본가이건, 살인범이건 성직자이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치료방침도 다르지 않다. 정신분석이나 다른 상담기법들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인생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한국과 미국의 환자를 정신분석을 하는 원칙이 결국은 같다고 생각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보편적 인간 심리이듯이 인간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살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가정을 갖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분석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자체에 더 깊이 파고들어 갔다. 정신분석학이란 학문의 발전은 초기 프로이트의 정동-

트라우마 이론에서 자아심리학으로 발전하고, 이어 클라인을 포함한 대상관계 이론, 코흐의 자기심리학을 지나 1970년대 이후 상호주관성 이론으로까지 발전했지만 여기에 사회적 변화는 반영된 바가 별로 없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미흡하다고 정신분석가들 중 상당수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환자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남자 네 명이 중년 남성 한 명을 테이프로 나무 판에 싸맨 후 얼굴에 낙서를 하고, 다른 남성은 자기 성기를 그의 얼굴에 들이대는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메라로 담았다. 이 사건은 범죄자 집단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럽의 한 마을의 회사의 노조 대표가 다른 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시민이자, 직장인, 그것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저런 가학적인 장면을 집단으로 저지르고 그걸 또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정신분석가가 있었다. 벨기에 헨트 대학의 파울 페르하에허(Paul Verhaeghe)다. 그는 일찍이 정신분석가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2000년부터는 신경과학과 정신분석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그가 신자유주의가 특색한 서구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격유형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해낸 책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What About Me?: The Struggle for Identity in a Market-Based Society)'를 썼다.

위의 사례는 그가 책의 서문에 소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한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오랜 기간 구타를 하고, 모욕을 하고, 급기야 인분을 먹이는 만행을 저지르다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인간에게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e Hyun Ha,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120-1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30, Korea
Tel: +82-2-2030-7569, Fax: +82-2-2030-7748
E-mail: jhnha@kuh.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행위를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을까. 더욱이 그에 동조한 다른 대학원생들은 죄의식없이 그 행동에 동참을 해 왔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동료의식이나 최소한의 연민, 미안함, 그래서 안 되겠다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착한 아들, 온순한 학생이자 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초자아의 분절이 일어난 기제는 도저히 무엇일까? 원래 사이코패스적 유형의 사람이 그걸 가장하고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강한 본능을 억제하던 것이 해제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페르하에히는 모든 것을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거시적인 사회의 변화를 주목해 봐야만 이 의문을 풀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한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의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정체성 형성과정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지 않고, 정체성의 거울로 이용되는 외부세계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정체성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몸에 새겨 넣은 관념의 집합이고 세계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근대사회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사고체계인 신자유주의는 길게 돌이켜 보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기독교 철학에서 비롯했다. 기독교 철학은 신아래 존재하는 인간의 부족함과 죄의식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이를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인간은 경외하는 신을 믿으며 거기에 추호의 의문을 가져서도 안 된다. 또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동을 하며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능력주의로 발전해서 실패와 가난은 그 사람의 존재론적 못남을 뜻하고, 인성이 유약하다고 보는 방향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우매한 개체인 것이다. 이에 반해 충분한 노력을 통한 성공과 부의 축적은 모든 것이 결국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므로 이 철학에 기반하면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라 판단하게 된다. 어느새 재정적 권력이 도덕적 권력과 등가가 되며 사회의 지배역시 은행가나 기업체의 지배자가 도맡는다. 실패를 게으름의 결과이며 그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그 개인은 능력이 원래 모자라게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고 보는 사회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세상은 나쁜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탐욕과 비도덕적 행동이 조장되고 돈을 버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를 저자는 '엔론사회'라고 말하면서 이런 흐름이 기업뿐 아니라 대학, 병원과 같은 공간까지도 모두 침투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학도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곳으로 한정되고, 기업에 복속되며, 연구비에 교수들은 종속된다. 병원도 환자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며 고전적 의사-환자 관계는 점차 소멸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의사나 환자 모두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20세기 후반 들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자해와 섭식장애, 우울증, 인격장애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사회적 맥락의 원인을 찾기보다 현상을 찾아내서 그 현상을 신자유주의가 정해 놓은 규범 안으로 다시 옥여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 정신치료가 정신분석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덕분에 병원과 심리치료기관에는 환자가 범람을 하게 되며 심리적 장애가 일종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모든 문제의 해결도 결국 개인의 정신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개인의 결함 내지는 결핍의 문제로 치환해 버렸다.

저자는 이런 분석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한쪽 일부에서는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심하게 공격적이거나, 타인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돈과 권력, 성공에 대한 집착만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들이 사회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는 원인을 거시적으로 잘 규명해 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다시 윤리의 관점으로 돌아가자 제시하고, 인간의 조건을 끌어안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한 전통적 방법, 이기심과 구분하는 자기배려에 대한 비중, 일하는 사람의 권한을 지배자의 권력과 구분하고 인정하기, 결핍을 의미로 바꾸기 위한 창의적 노력에 대한 집중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본성을 회복할 최선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대사회의 여러 병리적 현상을 경쟁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약한 개체의 문제이며, 결국 문제의 해결도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자는 철저히 반대한다. 그리스철학과 기독교철학의 경쟁의 구도란 2천 년에 걸친 역사적 통찰을 기반으로 뇌과학, 정신분석, 사회학, 윤리학, 철학까지 총횡무진으로 엮어서 조목조목 논증해 냈다. 그렇기에 저자의 지적 서사는 한 번에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요즘 들어 진료실에서 뭐라 단 번에 진단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보고, 아임상 수준의 자기애적 문제,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성이나 자해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고 여기는 치료자라면 거시적 관점을 갖기 위해 한 번 읽어 볼만한 책이라 생각한다.